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5년 3분기 웹진 「배려」

풍성한 추석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발행처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행인 : 정종남 편집 : 박지훈 발행일 : 2025년 09월 30일

홈페이지 : <http://www.kbcil.or.kr> 전화 : 908-7776 팩스 : 0303-0799-1758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707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개별ILP '김○호'



▲ 자신이 직접 수확한 자두를 자랑하는 김○호님



▲ 자두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이번 5차 개별ILP 활동으로 자연체험(자두농장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개별ILP 프로그램을 정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부터 과일 수확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고, 복숭아, 배, 감 등 다양한 과일을 이야기 해주셨으나 아쉽게도 수확시기가 아니라 자두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두체험은 가평에 위치한 농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처음 시작부터 농장주님께서 잘 익은 자두 선택방법, 수확 방법 등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참여자분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자두를 수확하며 매우 큰 기쁨을 느끼셨으며 복숭아가 아니라 아쉽지만 과일 수확체험을 할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개별ILP '김○호'

6차 개별ILP 프로그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립을 준비하시는 김○호 참여자님의 근로 능력을 파악하고 어떤 직업이 잘 맞을 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참여자의 직업 선호도 확인과 취업 지원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참여자의 근로 능력을 파악이 먼저라고 생각되어 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 평가는 김○호 참여자의 대화 이해 능력, 스스로 출, 퇴근은 가능 여부 등 매우 세세하게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로 평가 종료 후 김○호 참여자께서는 열심히 한 것 같아 뿌듯함이 느껴진다고 평가해주셨고 평가 결과는 김○호 참여자님 개인 휴대전화로 발송해준다고 하며 종료되었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 평가에 참여하는 김○호님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개별ILP '김○호'



▲ 가브리엘 작업장 설명을 듣는 김○호님



▲ 박스 접기 체험을 진행하는 김○호님

7차 개별ILP에서는 자립생활 위해 다양한 직업 체험을 원하시는 김○호 참여자님의 욕구에 맞추어 작업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대린원 수락산역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상계역 가브리엘 작업장에서 진행하였으며 작업장 측에서 김○호 참여자가 원하던 박스 접기 위주 체험으로 준비해주셨습니다. 작업장 측에서 내부 소개 및 근무 내용 등을 설명해주시며 작업장 체험을 시작하였습니다.

김○호 참여자께서는 약속된 시간보다 약 30분 이상 더 체험하며 매우 즐거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작업장 측에서도 참여자의 근로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며 체험을 종료하였습니다.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자 인권교육



▲ 거주시설연계사업 이용자 인권교육 진행모습



▲ 현장에서 겪는 사회복지 인권 딜레마란?

거주시설연계사업의 일환으로 3분기에는 이용자 개별ILP, 2차 인권교육(종사자), 자립생활체험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08.26(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이 근무 중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2차 인권교육(종사자)을 진행하였으며, 참여자 85%가 교육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강사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강의 내용, 그리고 종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개별ILP '오○천'



▲ 뮤지컬 '팬텀' 홍보 패널앞에서 오○천님



▲ 어두운 미술관 체험을 진행하는 오○천님

또한 개별ILP 참여자 오*천님의 경우 문화여가체험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최근에는 대학로에서 연극과 미술관 관람 위주로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미술관 혹은 전시회 등 관람에 제약이 많은데, 국내 최초로 열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어두운 미술관'에 방문함으로써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체험



▲ 자립생활체험 '월미도' 기념사진



▲ 트로트 공연에 맞춰 춤을 추는 오○천님

2025년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자립생활체험이 09.18(목) 인천 월미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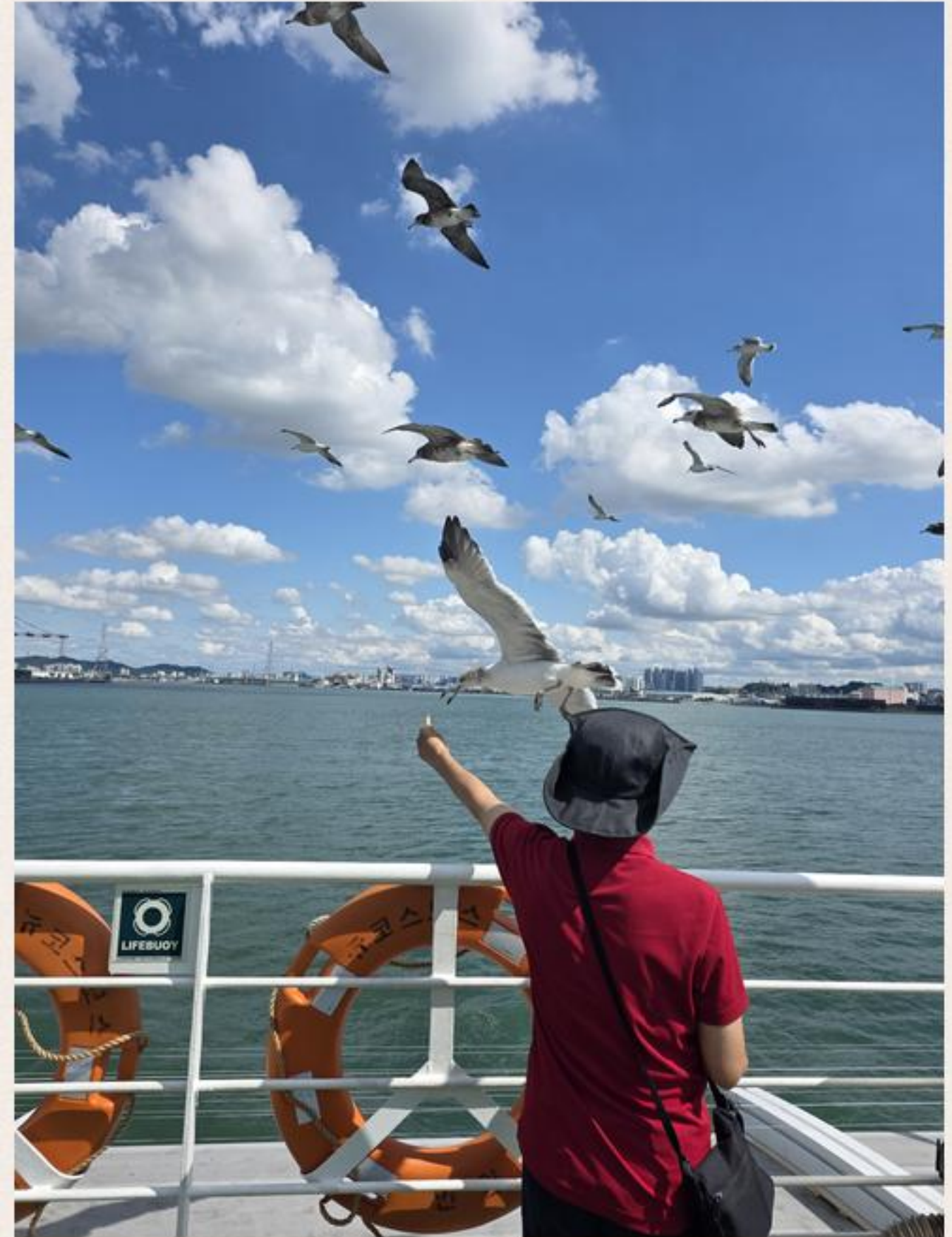
사전회의 이전부터 오○천, 김○호 두 참여자 모두 바닷가 항구도시 방문에 대한 관심을 자주 표현해 주셨고, 회의 자리에서도 월미도를 강력히 희망하셔서 최종 체험 장소를 월미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미도를 방문하여 맛있는 자장면과 짬뽕으로 점심 식사를 한 뒤, 신선한 바다 내음을 맡으며 즐겁게 프로그램을 이어갔습니다.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체험

특히 인천 바다를 더욱 가까이 체험하기 위해 월미도 유람선 체험을 진행하였는데, 김○호 참여자는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며 “재밌다”고 즐거움을 표현하였고, 오○천 참여자는 선내 트로트 공연에 열정적으로 호응하며 환호와 함께 춤을 추는 등 한껏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자립생활체험은 두 분 모두 만족스럽게 참여하신 것으로 보이며, 담당자로서도 매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김○호님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응답하라 52:Hz'



▲ 발달장애인 AAC 사용 방법은?



▲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단체사진

2025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응답하라:52Hz'는 08.21(목)~22(금) 13:00~18:00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동료상담가 보수교육은 미사강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지영 센터장님과 서울시의사소통증진센터 이경민, 이은주 언어재활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동료상담가 보수교육은 동료상담가 기본기 되짚기로 시작하여 발달장애인 내담자 상담방법 모색방법을 나누고 AAC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각자 동료상담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며 각자만의 해결방법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개인별자립지원 개별ILP

(의사소통훈련, 쿠킹클래스, 심리운동)



▲ 이○진님 쿠킹 클래스



▲ 여○민 의사소통 훈련

개인별자립지원 개별ILP는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의사소통훈련, 쿠킹클래스, 심리운동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주 1회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으며,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진님의 경우 식욕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쿠킹 클래스를 통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새로운 식재료를 맛보고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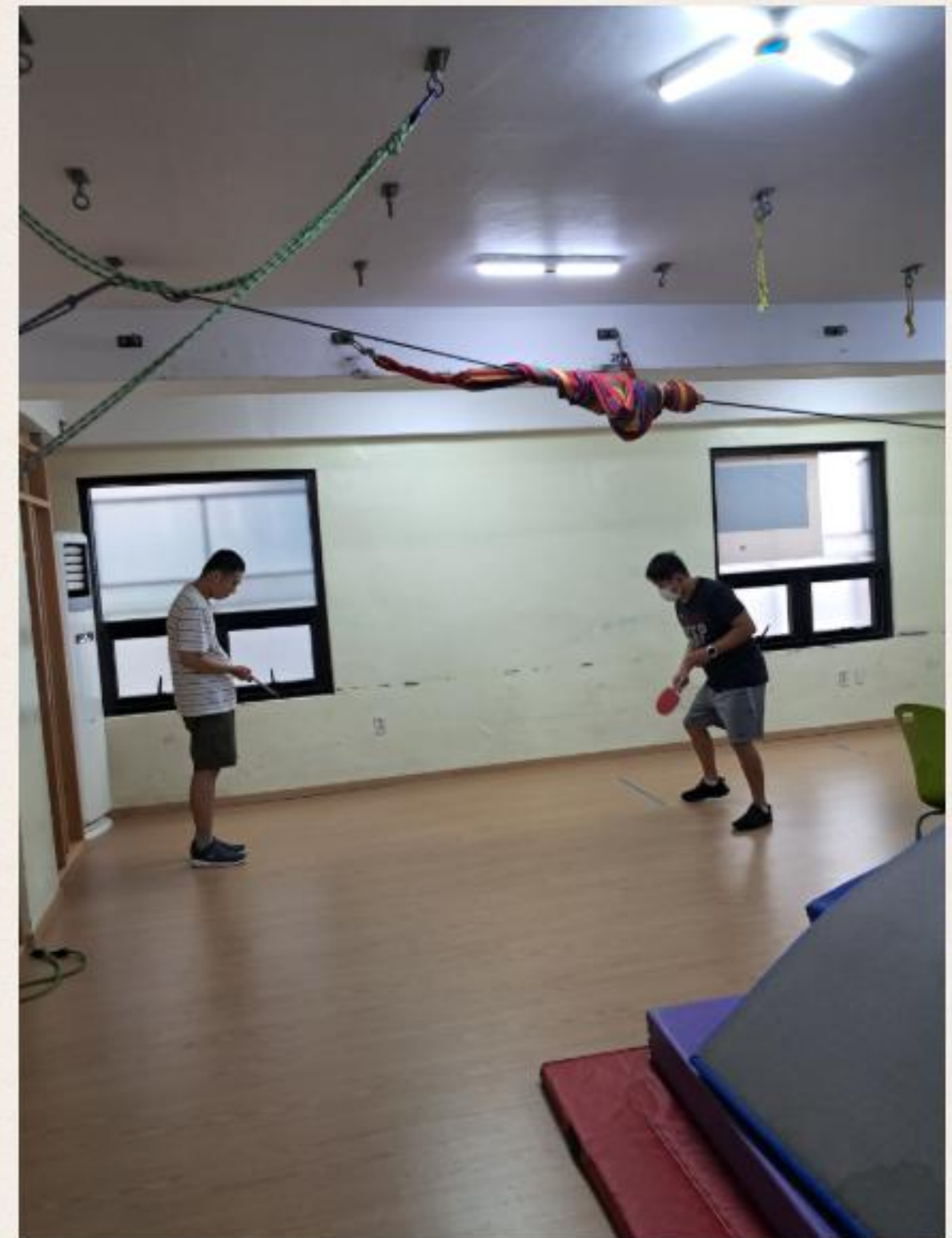
개인별자립지원 개별ILP

(의사소통훈련, 쿠킹클래스, 심리운동)

쿠킹 클래스를 통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새로운 식재료를 맛보고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여*민님은 지속적인 의사소통훈련 지원을 통해 약간의 발화가 시작되었으며, 박*일님 역시 심리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을 통해 상대방과의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남은 회차도 즐겁고 유익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 박○일 심리운동 프로그램

권익옹호 4~5차 장애인식개선캠페인 'ON&OFF'



▲ 4차 장애인식개선캠페인의 온라인 홍보 포스터



▲ 5차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진행모습

4~5차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ON&OFF'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4차는 퀴즈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컨셉으로 장애이해 관련 퀴즈를 풀어보고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방식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장소와 시간의 제약없이 다양한 참여자가 캠페인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 확대와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권익옹호 4~5차 장애인식개선캠페인 'ON&OFF'



▲ 장애 이해 퀴즈 풀기 참여모습



▲ 5차 장애인식개선캠페인 단체 사진

5차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은 강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업사업(무장애길 걷기대회)으로 추진되었으며, 코스 내에는 총 3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강북센터는 전 회차와 동일한 컨셉으로 QR코드를 활용해 '장애이해 퀴즈 풀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나, 고령의 참여자들은 QR코드 접근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추후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캠페인은 현장과 달리 직접 준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 아쉬움이 있었다는 일부 활동가의 평가가 있었으나, 올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모든 회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기쁘다는 의견과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사회연대활동(무장애길 걷기대회)



▲ 무장애길 걷기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 무장애길 걷기 단체사진

강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협업사업으로 추진된 ‘무장애길 걷기대회’는 일정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조정되어 09.19(금) 10:00 ~ 12:00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비 소식이 있었으나 다행히 금세 그쳐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사전 신청자 외에도 현장 참여자가 많아 전체적인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코스 내 3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그중 강북센터는 ‘장애이해 퀴즈풀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연대활동(무장애길 걷기대회)

전반적으로 이번‘무장애길 걷기대회’는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들이 함께 무장애길을 걷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의 의미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긋은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무장애길 걷기 준비 운동 진행 모습

2025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스스로’ 3분기 진행 보고



▲ 수족관을 관람하는 이○재님



▲ 팝콘을 나누어 먹는 이○나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스스로’는 6차 07.16(수), 7차 08.20(수), 8차 09.17(수) 총 3회 진행되었습니다.

6차 자조모임은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봉은사역에서 모여 코엑스 내 피자집에서 식사를 한 후 아쿠아리움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중 생태계와 다양한 해양 생물을 관람하며 신기해하고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아쿠아리움에서 진행 중이던 스탬프 찍기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7차 모임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스머프’를 관람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롯데시네마 수유에 모여 팝콘 등 간식을 직접 구매하고 서로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 관람 중에는 조용히 관람하고 휴대폰은 진동으로 설정하는 등 기본 예절을 잘 지켰으며, 관람 후에는 양식당에서 파스타, 리조또, 피자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2025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스스로’ 3분기 진행 보고

8차 자조모임에서는 청량리역에서 모여 기차를 타고 충청북도 제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제천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여 떡갈비를 맛있게 즐겼습니다. 식사 후에는 유람선을 타고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람선 탑승 시에는 다행히 비가 그쳐 안전하게 풍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기차와 유람선 탑승 과정에서는 줄을 서서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고, 평소 소극적이던 참여자들도 이번 모임에서는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유람선에서 청풍호를 관람하는 안○빈님

더위타파 나눔사업 『쿨한 동행』



▲ 더위타파 나눔사업 배포 진행모습



▲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겠습니다!~

2025년 7월,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무더위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냉감이불 지원사업 『쿨한 동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물품 지원이 아니라, 여름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의미를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선정자들은“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번 『쿨한 동행』을 통해 새로운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입직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7월 7일부터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함께하게 된
김용환입니다!

저는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지원하는 일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배우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속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당당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열정남' 김용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실습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사회복지실습을 진행했던 박지현입니다. 설렘과 함께 걱정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실습이 어느덧 한 달을 지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시간을 통해 배우고 느낀 소중한 경험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센터에서 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이후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면서, 센터의 배려로 이번에는 실습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새로운 배움을 시작한다는 점이 다소 걱정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컸습니다.



▲ 자립생활체험 사전 회의 참여 모습

실습을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센터의 목적과 운영 방식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할 때는 기관의 방향성과 사업 목적을 자세히 알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실습을 통해 기관을 분석하고 다양한 사업을 배우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립을 중요하게 생각해 온 제 가치관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지원인으로서 한 사업에만 집중했지만, 실습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경험하며 ‘사회복지사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료상담 보수교육의 보조 스태프로 참여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복지실습을 마치며...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며 장애인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발달장애인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었던 점이 무척 소중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진로를 걸어갈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습 기간 동안 지도자님과 직원분들께서 실습생을 동료로 존중해 주시고, 작은 질문에도 친절히 답해 주신 덕분에 더 적극적으로 배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협력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움들이 모여 이번 실습은 제게 성장의 기회이자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사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신 센터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실습은 제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배움과 성장으로 채운 3분기 인턴 활동기

이번 분기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활동지원사 건강진단서와 후견인부존재증명서를 접수하는 일을 맡으면서 처음 들어보는 서류를 직접 찾아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글쓰기 연습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장애인 복지 관련 뉴스를 조사하면서 글로 정리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뉴스를 정리하다 보니 장애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표현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쿨한 동행’ 냉감이불 지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불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서 작은 도움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자조모임에도 참여하여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경험도 많았습니다. 거주시설 연계사업에서 보조 스텝으로 참여하며 당사자분들과 직접 만나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고, 자립생활체험 간담회에서는 함께 의견을 나누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분기를 돌아보니 단순히 일을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느꼈습니다.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턴 김원상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별자립지원

<맛집탐방 - 삼계탕>



○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별자립지원 - 삼계탕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개별자립지원

<맛집탐방 - 삼계탕>

07.29 (화) 개별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맛집탐방_삼계탕 전문점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날 삼복(三伏) 중 하나인 중복(中伏)을 기념하여, 서울의 3대 맛집이라고 불리우는 삼계탕 전문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입주자 강○연님에게 메뉴판을 건대며, 본인께서 원하시는 삼계탕으로 함께 온 모든 사람 것까지 주문을 요청 드렸습니다. 강○연님께서는 키오스크로 멋지게 주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는 입주자 엄○희님의 요청으로 신○수님, 이○수님(가형 자립생활주택 퇴거자)도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서로 맛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음료수를 서로 나누어주면서, 이번 맛집탐방_삼계탕 전문점 방문을 마쳤습니다.



▲ 메뉴를 고르는 강○연님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별자립지원

<요리실습 - 김밥 만들기>



○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별자립지원 - 김밥 만들기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개별자립지원

<요리실습 - 김밥 만들기>

08.05 (화) 개별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요리실습_김밥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요리를 할까, 입주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스무고개를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음식 종류를 하나하나씩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TV에서 나오는 김밥이 입주자분들의 눈에 띄어 김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입주자분들이 김밥을 만들고 코디네이터인 제가 보조하는 형태로 처음에는 진행하였습니다. 맛살, 햄, 단무지, 고기, 깻잎, 계란, 치즈까지, 과연 김밥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일 정도로 너무 많은 재료를 넣는 입주자분들을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땀까지 흘려가면서 만드는 모습이 재미있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도 요리실습의 일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면서, 요리실습을 마쳤습니다.



▲ 김밥을 만드는 엄○희님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별자립지원

<여가문화 - 영화관람>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별자립지원

<여가문화 영화관람>

08.07 (목) 개별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여가문화체험 영화관람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영화관람은 입주자 강○연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영화, 뮤지컬, 연극 등의 관람을 선호 하였지만, 이번처럼 강하게 주장하시는 적인 흔치 않았기에, 바로 2일전에 요리 실습을 하였음에도 영화관람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 근처에 있는 CGV수유점 대신에 비교적 큰 CGV용산점을 방문하여서 그런지 입주자분들도 영화관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셀프로 담으며 이번 영화관람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 스머프 등신대와 강○연님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별자립지원

<입주자 생일파티 - 엄○희>



○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별자립지원 - 입주자 생일파티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별자립지원

<입주자 생일파티 - 엄○희>

08.29 (금) 개별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입주자 엄○희님 생일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 1일, 만 38세 입주자 엄○희님의 생일을 기념하여, 센터장님, 입주자 강○연님, 신학수님, 이만수님(가형주택 퇴거자), 지원인력분들 모두 모여서 입주자분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립생활주택에서 맞이하는 7번째 생일이자, 마지막 생일파티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생일파티였다. 평소 친구라 여기는 신학수님과 이만수님 초대하여, 입주자분이 원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고, 가장 좋아하는 치킨과 피자를 먹으며, 입주자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해 드렸습니다.



▲ 엄○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달의 정보

서울시, 최종증장애인 돌봄 고령가족 지원수당 월 30만원 지급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의 4대 분야 지원으로 힘겨운 일상이 아닌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일 자리를 연간 5000개에서 1만2000개로 대폭 늘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취업률이 특히 낮은 발달·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직업학교도 2030년 개교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이 활력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



▲ 아주 보통의 하루
©서울시

2025년 07월 ~ 2025년 09월 회비 및 후원금 명단

국민은행 수유점 김숙이 김재환 민한나 박동열 박민숙
박지훈 박혜진 배소영 안해영 윤동현 이동현 이영석
이영훈 장민정 정종남 정주영 주영경 최옥희 최윤숙

회비 및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07월 ~ 2025년 09월 물품 후원명단

김영주 김예숙 김태영 노숙향 오현주 이성희 손은태 최윤숙
최영숙

물품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CMS안내

CMS 계좌안내

CMS계좌

국민은행 694701-01-379943

예 금 주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 의

02-908-7776